

[심의 총평] 창작자과정 - 문학

- 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의) 2018. 3. 30(금) 11:00~14:00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2차 인터뷰심의) 2018. 4. 5.(목) 12:30~15:00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미정, 신병은, 이명원, 이인성

<서류 심의>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의 사업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그간의 예술적 역량, 향후 연구·창작 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다. 시·소설 부문 공히,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첫째, 창작·연구취지와 구체적 작품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5년 미만 신진작가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화법·기법·사상·세계인식 등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시 부분의 경우,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천착부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까지, 시 세계의 스펙트럼이 넓었다. 한편 젊은 시인들답게 과감한 실험적 시도들이 두드러졌으나, 시적 완성도가 부족하여 아쉬운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시적 완성도가 높지만 문제의식이 빈곤한 경우도 있었다. 즉, 의욕과 실제창작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지원자들의 시세계와 관련하여 2000년대 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럼에도 각자가 가진 역량을 향후 더 심화시키고 구체화할 수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편, 소설 부분의 경우도 비슷한 장단점이 눈에 띄었는데, 때로는 형식실험 의욕이 과잉된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내용과 메시지에만 집착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한국 사회의 여러 이슈와 문제들에 천착하는 서사적 의욕도 분명했고, 전반적으로, 각자의 의욕이 어떻게 자기소설 작업과 긴밀하게 연결될지, 어떻게 구체화·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비중을 두어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의 이와 같은 논의 끝에, 비교적 계획과 성취가능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원자 총 12명을 선정했다.

[심의 총평] 창작자과정 - 문학

<인터뷰 심의>

인터뷰 대상자 모두 주관이 뚜렷하고 문제의식이 분명했다. 다만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연구계획이 실제 작품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다.

시부분 지원자들은 시와 공간 산문과 시, 개인성의 심화와 확장·타자의 목소리 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보여주었고, 이론과 창작의 유기적 결합, 시 장르 자체의 갱신에 대한 의욕도 고무적으로 여겨졌다.

소설 부분의 경우, 공간과 산문언어의 결합 등 융합장르에 대한 고민이 흥미로웠고, 역사를 현재형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 과학을 장르소설의 문법에만 갇히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가 주목되었다.

한편, 인터뷰 심의에 참여했던 많은 지원자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의 참여를 통한 작가들 간의 공동 작업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시·소설의 창작에 필요한 여러 자료, 장소, 전문가들과의 만남에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현재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바와, 본 아카데미 사업의 취지가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연구계획 중에서, 그것을 실현할 가능성이 큰 지원자에게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2018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자과정-문학분야 선발 심의위원 일동